

책자형 선거공보

당진시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

당진1동·당진3동·석문·고대

개혁신당

당진의 내일을 함께하는  
선후배 당진 시민들께 묻는 글.



4 시의원은  
고재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당진시의회의원선거 (당진시라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4	개혁신당	고재운	남	2006.11.30. (19세)	정당인	한서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휴학	(현)개혁신당 충남도당 대변인 (현)자원봉사단체 청춘 대표(단장)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312,793	15,809	해당없음	부 : 148,140 모 : 148,844 조부 : 고지거부 조모 : 고지거부	해당없음	3급 현역병 입영대상 (복무대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0	0	0	해당없음
후보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조부:신고거부, 조모:신고거부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4. 소명서

존경하는 당권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의원 후보 고재윤입니다.

겨울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길 겁니다. 꼭지에도 답중 사거리에서 연신 허기 속이는 모습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길 겁니다. 아이들에게 생뚱맞게 얘기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길 겁니다. 모든 분께 인사드리지 못했기에, 이렇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제가 20대 청춘에 하필이면 '경키' 라는 어려움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석목에서 초-중학교를 나왔고, 당진고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집, 가족, 인맥, 경험 등 제 모든 자산은 당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이곳 당진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0년 뒤의 당진에서의 삶이 가치가 있을 것인냐” 라는 물음에, 내 앞을 살아가는 당권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는 버스는 없고, 석목-고대 가는 도로는 포트홀과 방기럭에 차도, 사람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즐길 곳이 없어 매번 갔던 그 곳에서 밤이면 밤, 슬어면 슬 똑같은 것만 반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전교를 못 보고, 학생들은 학교 선택의 폭도 좁운데, 온갖 민원에 메탈라 가고 있습니다. 7월이면 “지하주차장 카 빼야하냐?” 하는 걱정도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당진이 가장 간절합니다. 기성 정치인들과는 경험이 다르기에 보이는 것,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양’ 보다는 ‘누가 하는가’입니다. 우리 당진에서 살면서 겪는 즐되리, 즐리곳, 육아, 찻스 문제를 가장 잘 바꿔 볼 사람은 그 어떤 정치인들 보다, 내일의 당진이 간절한 사람, 저 고재윤이라고 단언합니다.

내일의 당진에서의 삶이 더 가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찬 표로, 앞으로 겪을 문제가 가장 많은 고재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2026년 5월 고재윤 올림.



당건에서의 삶이 더 가치 있도록, 적어도 이 4가기는 꼭 바꿔보고 싶습니다

먼저, 출퇴근부터 바꿔보고 싶습니다. 아침저녁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일상의 도시가 좋은 사값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건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당건의 주요 직장어 위 치한 석문 중앙 방향 출퇴근로의 포트홀, 차선 등 노면 보수를 가장 먼저 추진하여, 비 외면 안 보이고, 불통보통한 도로를 빠르게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당건에는 교대 근무로 밤이나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 권을 위해 대중교통 가드룸 추가 설치 예산으로 빠르게 확보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산단 중소기업 거점 특근 버스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직장 출퇴근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청년들이 소비하러 가는 것, 어르신들 병원 가 시는 것까지 바꿔보겠습니다. 당건은 차 없으면 어디 가기 참 힘든 도시입니다. 버스만 무조건만 걸작 하기 보다는, 버스비만 내면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상화를 추진하겠 습니다.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환승체계 구축을 제대로 추진하여 버스를 지하철거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 습니다. 거점만 빠르게 들르는 간선과 구석구석 들르는 지선으로 나누고, 스위치역에는 부르면 오는 해 북버스(DRT)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점진적으로 환승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어르신들의 혼란은 줄이면서, 버스는 지하철거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동력 노선을 조정하고, 수평동 버스를 확충해 도시를 연결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아제는 확대 도입하여 야간 버스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행 고속버스 확보, 천안-아산 노선 현장/온라인 예매 비율 조정을 요청하고, 버스 외벽 정류장 디스플레이를 추가 도입하여 당건의 아톰과 저 녁부터 바꿔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당건에서 즐길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건은 희생, 청년, 학부모 즐길 문화 요소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타지로 나가고, 학생들은 피시방, 노래방만 전전하며 원 도습은 쉽게 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하는 것아 아니라, 취미 생활 중심의 원도습 활성화를 추진하여 성견은 바꾸겠습니다. 현재 유흥가로 가득 찬 원도습을 시생세 값변과 업종 변경 지원, 크외광고 및 단속 등 적극 행정을 동원해 민원 걱정 없이 취미 생활하는 공간으로, 다시 채워겠습니다. 성모 병원 인근에는 보육 지원 공간으로, 마로 옆 풍신 상가에는 코빙리 공방 등 취미 공간으로, 유흥가 자 리에는 밴드 등 연습실로 채우고, 전동시장 재점비의 맞춰 야시장을 프성해 합세로 청년과 학생 그 리고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소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수정동 주민이자 당진 시민으로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이 아닌, 문화가 가득한 당진만의 문화 호수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휴식 공간이자, 아이들과 청년들이 재능을 뽐내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뱀뿔 시냇과 버스킹 존 등 목적을 함께 조성해서 평년 저녁이나 주말, 콘서트와 가족들과 호수공원으로 버스킹, 밴드 공연, 테리드, 줄 공예 등 문화생활을 즐기러가고, 무대에서 곱을 뽐내는 게 일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행복관 노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진은 2년 연속 종합 출산율 1위 도시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병원 노곤증이 일상입니다. 이전에 시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출근 전 병원을 시로 찾았으나, 참여 희망 병의원이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왜 그러까 의문이 들어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 출신 이주영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렇게 도출한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는 공공계이지만, 병원은 사업체입니다. 손실만큼 수준의 지원, 강제 조건 많은 정책으로는 참여 유도의 효과가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진료 시간을 선택하게 하고, 단계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수가를 추가 보전하는 운영비 및 수가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익이 늘어나게 설계하여, 소아 청소년과를 비롯한 전문의들이 전국 어디보다 당진에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걱정 없도록, 밤에도 당진 병원은 불이 켜지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당진 시내권 고등학교는 단 3곳,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전에 실감하려다 무산된 수험생의 반복은 담은 것은 학생이 감소했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 학교를 확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특구 지정을 여러번게 제안드립니다. 학교 신설 근거를 마련해 선택지를 제공하고, 초-중학교에서는 곱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병원 걱정없고, 교육걱정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당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은 걱정할 필요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한수 파해를 입었습니다. 학교들은 학교가고, 지하주차장 자동차들은 물에 잠겼으며, 시장은 동계로 갈고, 병원의 승강기가 침수되어 거동이 불편하면 환자분들은 반이 목였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유역종합차수계획 용역 보고서를 찾아보고, 전문가를 찾아가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안할수록, 당장의 성과가 필요한 정치권투의 시선이 아닌, 가장 문제를 잘 알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배수 펌프강도, 우수관 정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유역 종합 차수 계획을 최우선 추진해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역관-당진권 합류부 개선을 통한 배수 개선, 저류저를 통한 유량 조절 등 국가중수예방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크비로 곱을 막고, 걱정없는 당진을 만들고 싶습니다.

# 내일의 당진이 가치있도록, 고재윤이 드리는 약속

## 출퇴근이 편해지는

- ✔ 지능형 신호체계 확대 및 유지비 확보: 출퇴근을 더 쾌적하게
- ✔ 방지턱, 카메라 등 과잉 규제 조정: 융통성 있는 당진
- ✔ 대호만호 등 출퇴근로 노면 보수: 출퇴근 스트레스 없는
- ✔ 버스 외벽 정류장 디스플레이 설치: 어디가는 버스인지 바로 알 수 있는
- ✔ 자율주행버스 확대 도입: 야간에도 버스탈 수 있도록
- ✔ 중소기업 통근 버스: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도록
- ✔ 환승체계 점진적 재구축: 버스를 지하철처럼
- ✔ DRT 확대 도입: 원하는 장소로 불러서 타는
- ✔ 통학 맞춤 노선 조정: 학교가기 편하게

## 즐길 곳이 늘어나는

- ✔ 유흥가 업종 변경 추진: 유흥가에서 취미 공간으로
- ✔ 호수공원 공연 시설 조성: 호수공원으로 버스킹 보러
- ✔ 원도심 청년 공간: 야시장과 청년 창업 공간으로
- ✔ 원도심 보육 공간: 성모병원-돌봄센터 연결하는
- ✔ 원도심 취미 공간: 민원 상관 없이 취미 즐기는
- ✔ 취미 중심 원도심: 원도심-야시장-전통시장 연결로 부활
- ✔ 주차장 확보: 원도심 폐가 철거와 특별회계로

## 아이 키우기 좋아지는

- ✔ 의료인 법률 지원: 의사하기 좋은 도시
- ✔ 운영비+수가 보전: 야간 진료가 일상이 되는
- ✔ 중대응급의료 이송 체계 구축: 응급실 뱅뱅이 없도록
- ✔ 교육 특구 지정: 학교 확충 설치 근거 마련
- ✔ 진로 연결 프로그램: 아이들이 꿈을 찾는
- ✔ 교사 민원 보호: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도록

## 걱정이 덜어지는

- ✔ 유역종합치수계획 최우선 추진: 원인 분석 및 국비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 ✔ 역천-당진천 합류지점 개선: 하천 배수 능력 개선
- ✔ 우수관 위치 표시 확대: 언제든지 긴급 대응을 위한
- ✔ 소방 구급 장비 예산 확보: 가장 1순위는 안전이니까



**직접 들은 민원들, 꼭 바꾸겠습니다.**

-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나이는 없으니까 ✓
- 군장병 안심 케어 보험: 당신을 당신이 먼저 지키도록 ✓
- 전역 장병 사회 복귀 지원: 의무로 인한 경력단절 없도록 ✓
- 고대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고대를 당진 체육의 심장으로 ✓
- 당진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주말, 방학에는 당진으로 ✓
- 버스 안내 방송 외국어 병기: 타지 생활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
- 지역민 고용 기업 인센티브: 전기요금 환급으로 기업과 함께 상생 ✓
- 안심 고용 업체 인센티브: 종량제 봉투 등 지원 ✓
- 임금체불 페널티 부여: 입찰 제한 등, 공시 등 ✓
- 버스 기사 처우 개선 ✓
- 아파트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
- 아파트 하자, 층간소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
- 석문, 고대 스마트산업 육성: ✓
- 스마트 팜, 양식장 등 농수산업 점진적 대체 ✓
- 청년 귀농인 전원 주택 단지 조성: ✓
- 청년귀농인만을 위한 커뮤니티 ✓
- 구터 인도 확장: 걷기부터 편하게 ✓
- 불법 튜닝 단속 강화: 귀 아프지 않은 당진 ✓
- 과태료로 흡연부스 확충: ✓
- 일반회계 예산 확보로 사업 예산 충당 ✓
- 금연구역 단속 강화: ✓
- 적어도 길에서의 피해는 없도록 ✓
- 노인 대학 지원: ✓
- 노후 생활, 이웃들과 함께 ✓
- 버스 현장/온라인 예매 비율 조정 ✓
- 교육-문화 분야 청소년 의견 반영 강화 ✓
- 석문초 앞 육교 등 시설을 유지 보수 ✓
- 농구장 바닥 등 공원 인프라 유지 보수 ✓
- 길에서 보이는 시의원: ✓
- 구터 식당에서, 호반 길거리에서, 신터 버스에서,  
곳곳에서 선거 끝나고 더 자주 보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공약 제안과 더 많은 이야기는**



언제나 당만보고 뽑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태입니다.  
내일 당진에서의 삶이 더 가치있도록,  
바꾸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퇴근을 바꾸는 한 표,  
즐길 곳이 생기는 한 표,  
아이가 행복해지는 한 표,  
걱정을 더는 한 표,  
...

4등까지 뽑는 당진시의원,  
딱 4,090표로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 4 시의원은 고재윤



- 삼봉초, 석문중, 당진고 졸업
- 한서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 휴학
- 현) 개혁신당 충남도당 대변인
- 현) 자원봉사단체 청춘 대표(단장)
- 전) 당진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전) 한국공보뉴스 지역전문기자(당진)

☎ 투표는 언제?  
사전투표 | 5월 29~30일  
본투표 | 6월 3일

010-3896-9402

  
고재윤이  
궁금해했다면